

[중국법실무 - 3]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 구별



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기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증인" 또는 단순히 "입회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회보증인"이라는 문언은 "보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입회"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고 해도 "보증" 법적 의미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법 실무에서는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을 엄격

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见证人是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인이고, 保证人是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계약서 문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계약서 문언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见证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保证人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회인으로 증인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정작 계약서에는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심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한 경우,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Attention! 중국 계약서에서 见证人是 증인, 保证人是 보증인이라는 점 유념

중국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지재권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